

올해 수능 11월 15일 실시

원서 이달 23일부터 접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11월15일 치러진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23일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8월 23일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2일 발표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8월23일부터 9월7일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후라도 접수 기간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험자, 군복무자, 입원중

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일 경우 대상이 된다.

또한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험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어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졸업자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

원광대 기계계열학과 KSAE 자동차 대회 장려상

원광대학교 기계계열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자작 자동차 동아리 팀이 '2018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주최한 '2018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는 96개 대학에서 184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군산 새만금에서 열렸으며, 원광대는 '메커니즘 B', '메커니즘 E' 팀이 오프로드(Baja) 및 전기차(EV) 부문에 출전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메커니즘B 팀(팀장 최성훈)은 험난한 코스를 완주하는 내구성 평가가 진행된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성공한 팀이 겨우 10% 정도인 총 40랩 완주를 통해 내구력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메커니즘E 팀(팀장 박재원)도 전기차 부문에서 성능을 인정받았다.

학생들을 지도한 이승재(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올해 대회는 참가팀이 가장 많아 경쟁이 매우 치열했지만, 프라임사업 및 LINC+사업 지원으로 지난해 겨울부터 준비한 덕분에 2개 팀이 수상할 수 있었다"며, "프라임사업으로 신설된 기계공학과, 스마트자동차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등 기계계열학과 신입생을 비롯해 기존 기계자동차공학부 선배들의 열정과 팀워크가 빛을 발했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대학교 2017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22일 전주 덕진구 전북대학교 삼섬문화회관과 대학교 일원에서 실시된 가운데 졸업생이 행거를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전북대 2017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 성황리 거행

전북대학교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2일 오전 10시 삼섬문화회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 및 학무위원, 이용규 총동창회장, 정인 총장, 졸업생 가족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24명을

비롯해 석사 332명, 학사 1,096명 등 총 1,552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남호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과오에 대한 인정과 타인에 대한 존중, 경청과 소통 등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 총장은 "잘못을 알면 고치기를 꺼려해서는 안되고, 동료를 오

래 사귀수록 더욱 존중해야하며, 항상 낮은 자세로 상대방 말을 경청하며 따뜻하게 소통하며 술선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또 도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태풍 '솔릭' 비상체제 돌입

긴급상황실 운영 피해예방 만전

전북교육청은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하고 학생 안전과 학교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황실은 21일 오후 6시 설치돼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교육기관 피해 최소화 및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실을 사교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와 기관에도 태풍 대비 안전지침과 태풍 행동요령이 담긴 안전교육자료를 보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는 기상특보 모

니터링을 철저히 해 강풍과 호우 등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보대로 19호 태풍 '솔릭'이 23일 전북을 통과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와 가정에서도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학생 이동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인해 임시휴업 또는 개학을 연기한 학교는 22일 오전 9시 현재 4개교다. 전주중앙초와 담초 22일 예정이던 개학을 27일로 연기했으며, 고창초·고창남초·남원용성초 등 3개 초등학교는 태풍이 전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23일 하루 임시휴업하기로 결정했다.

/김재훈 기자

장마철 사고위험 방지 건설현장 무더기 형사처벌

감독대상 938곳중 9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안전 취약 건설현장 429곳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23일까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938곳중 92%에 달하는 86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그 중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간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429개소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21억4000만원)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업재해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졸세우기 논란'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장애 정도를 1~6급까지 분류하고 획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 사라진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계속하면서 개별 심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바뀌면서 의학적 상태에 따라 부여하던 1~6급 대신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중증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그간 장애등급을 각종 서비스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공되는 서비스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장애정도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로 결정키로 했다. 등급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구분이 등 급처럼 굳어지지 않게 장애인 단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별서비스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